

北 용천 재해지원 추진현황

1. 사고 개요

- 4.22 평북 용천역에서 열차 폭발사고가 발생
 - 질안비료(질소암모늄)를 적재한 화물차량과 유조차량을 궤도 교체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전기선에 접촉하여 폭발사고 발생(4.24, 조선중앙통신)
 - 4.26 현재 피해반경 1.5~2km, 폭발지점 깊이 15m, 건물 30여동 및 완파 1,850세대 포함, 주택 8,100여세대 파괴, 사망자 150여명, 부상자 1,300여명, 행불자는 조사중(4.26 조선중앙통신)

2. 북한 동향

- 북한은 이례적으로 사고 발생 사실과 원인 및 규모를 신속히 발표하고,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, 중국 등의 인도적 지원 사실을 발표
 - 중통, 중·평방, 중앙TV(4.24-25), 노동신문(4.25) 등
- 우리의 지원 의사를 담은 한적 총재 명의의 대북전통문(4.24, 26)에 대해서도 곧바로 사의 표시와 함께 구호품 수령의사를 표명(4.26)

3. 경 과

- 4.23 고건 대통령권한대행, 인도적 지원대책 마련 지시
- 4.23 14:00 정세현 통일부장관, 내외신 주례 브리핑
“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
생각”
- 4.24 10:00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주재, 관계장관회의 개최
· 정부, 1차로 100만불 상당의 긴급구호 물품 지원 결정
※ 국제사회 지원활동 참가의 일환으로 20만불 지원계획을 주제네바대
표부를 통해 WHO측에 전달
- 4.25 09:00 「용천재해대책 실무기획단」 회의 개최
· 긴급 구호품목, 수송방안 등 세부 구체적 지원대책 논의
- 4.26 11:00 한적 총재 명의, 대북 지원계획 전통문 발송
- 4.26 14:00 북적 위원장 명의, 답신 접수
· 북측, 우리측 위로에 대해 사의 표명, 지원물품 해로수송 요청,
4.27 개성 실무협의 제안
- 4.27 14:30-17:00 용천재난구호를 위한 남북접촉(개성)
· 북측은 의료진이 충분히 파견되어 있고 의약품과 생필품도 기본
적으로 해결되고 있다면서 복구용 자재장비의 시급한 지원을 요
청
· 북측 요청품목 : 철판지붕재 4만㎡, 시멘트 5만t, 불도저 10대, 디
젤유 500t, 교육용 비품 등

- 4.27-28 통일부 장·차관 국회통일외교통상위 보고, 열린우리당·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 방문 설명
- 4.28 12:00 100만불 상당 긴급구호물품·의약품 인천항 출항 (4.29 21:00 北 남포항 하역완료)
- 4.29 07:30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주재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개최(지원상황 및 지원방안 논의)
 - 북측 요청 물량을 가급적 전량지원 하기로 결정
- 4.29 오전 우리측 한적총재 명의로 '일부품목 육로전달, 기술인력 파견' 등을 요구하는 대북전통문 발송
- 4.30 12:05 2차 구호물자 항공 수송(12:05, 평양 순안공항 도착)
- 4.30 오후 북측, 우리측 육로수송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내용의 전화통지문 통보
 - 교육용품 적재, 자동적재차를 20대 개성공단에서 인수
 - 우리측 기술인력이 단동 또는 신의주에서 일부장비 조작법을 전수토록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
- 4.30 중국 단동 현지 「수송지원반」 가동 개시
 - 통일·건교부 등 관계기관 지원인원(5명) 5.5부터 파견
 - ※ 중국 노동절 휴무(5.1~7)로 인해 민간단체 구호물품 전달 지체 (단동세관, 5.4(화), 5.6(목) 임시근무)
- 5. 4 제3차 구호물자 항공수송 완료(인천 - 평양)
 - 북구 자재·장비 지원 관련 대북 협의
 - 기본적으로 단동신의주로 수송, 식량은 남포항으로 수송
- 5. 5 제4차 구호물자 해상수송 출발(인천 - 남포)

- 5. 7 제1차 복구 자재·장비 육로수송
 - 경의선 임시도로 경유, 개성에서 인계하고 14:10 귀환
 - 대우물류 소속 운전기사들이 평양 운수연합 소속기사 20명에게 1:1로 40여분 동안 덤프트럭 운전 교육 실시
- 5.10 제2차 복구 자재·장비 출항(인천-단동-신의주-용천)
 - 5.11 단동항 도착, 5.13 신의주 도착 예정
- 5.11 제3차 복구 자재·장비 출항(인천-단동-신의주-용천)
 - 5.12 단동항 도착 예정. 5.15 신의주 도착 예정
- 5.12 제5차 구호물자 지원 출항(인천 - 남포)
- 5.14 제2차 복구 자재·장비 조작법 전수(단동)
- 5.17 제4차 복구 자재·장비 출항(군산 - 남포)
- 5.20 제6차 복구 자재·장비 출항(동해 - 단동)
- 5.21 제5차 복구 자재·장비 및 6차 구호물자 출항(인천 - 남포)
- 5.25 제7차 복구 자재·장비 출항(인천 - 남포)

4. 주요 지원내용

- 정부(한적) 지원상황(누계 : 26,483백만원 / 2,206만불)

품 목	금액	수송상황
○ 1차 구호물자 해상수송 - 의약품 72종, 의료장비 및 의료비품 91종 - 응급구호품 3종, 생필품 등 2종	886백만원 (73만8천불)	4.29 남포항 전달완료

o 2차 구호물자 항공수송 - 응급구호세트 3,480세트, 생필품 11종, 의약품 9종	591백만원 (49만3천불)	4.30 순안공항 전달완료
o 3차 구호물자 항공수송 - 의약품 341종, 의료비품 277종, 의료장비 9종	2,640백만원 (220만불)	5. 4 순안공항 전달완료
o 4차 구호물자 해상수송 - 구호세트, 식료품, 의류, 생수 등 컨테이너 88대 분량	1,945백만원 (162만불)	5. 6 남포항 전달완료
o 1차 자재·장비 육로수송 - 덤프트럭(8t) 20대, 책걸상 1,500조, 칠판 50개	1,104백만원 (92만불)	5. 7 개성 전달완료
o 2차 자재·장비 지원 - 굴삭기 5대, 휠로더 10대, 부품 15개	864백만원 (72만불)	5.13 신의주 완료
o 3차 자재·장비 지원 - 철근(10mm) 500톤, 영화비닐 460톤, PVC파이프 15톤, PVC 필터 25톤	641백만원 (53만불)	5.11 인천항 출항 5.15 신의주 완료
o 5차 구호물자 지원 - 식료품, 생필품, 의류, 생수 등	1,848백만원 (154만불)	5.12 인천항 출항 5.13 남포항 완료
o 4차 자재·장비 지원 - 쌀 5,000톤	9,128백만원 (760만7천불)	5.17 군산항 출항 5.21 남포항 완료
o 5차 자재·장비 및 6차 구호물자 지원 - 디젤유 500톤, 휘발유 500톤 - 의약품, 의류 등	1,540백만원 (128만불) 720백만원 (60만불)	5.21 인천항 출항 5.24 남포항 완료
o 6차 자재·장비 지원 - 시멘트 1차분 6,600톤	535백만원 (44만6천불)	5.20 동해항 출항 5.24-27 단동-신의주 수송
o 7차 자재·장비 - 밀가루 5,000톤, 철판지붕재 4만㎡, 철근(13mm) 500톤	3,425백만원 (285만4천불)	5.25 인천항 출항 5.26 남포항 도착
o 8차 자재·장비 - 시멘트 2차분 3,000톤	243백만원 (20만3천불)	5.24 단동항 도착

o 국제사회의 대북지원활동 참가와 관련 WHO(세계보건기구)에 20만불을 지원(5.13)

- NGO, 시민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성·금품을 모집하여 대한적십자사에 지정기탁을 의뢰하는 경우, 수송비 지원
- 남북당국간 개성실무회담(4.27)에서 북측이 피해복구를 위해 요청한 자재·장비는 가급적 전량 지원
 - 소요비용(수송비 등 포함 약 310억원 추정), 국민성금과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
 - 지원 자재·장비 내역
 - ① 철판지붕재(0.8mm 아연도) 4만㎡, ② 시멘트 5만t,
 - ③ 수지창(유리포함) 2만㎡, ④ 페이로더 10대,
 - ⑤ 굴삭기(유압식 0.5~1㎡) 5대, ⑥ 지동적재차(8t급 이상) 20대, ⑦ 디젤유 500t, ⑧ 휘발유 500t,
 - ⑨ 환강(10mm, 13mm 각각) 500t, ⑩ 염화비닐(사출용) 500t, ⑪ 경화성수지에칠렌(사출용) 1,000t,
 - ⑫ 식량(쌀, 밀가루 각 5,000t) 10,000t,
 - ⑬ 교육용비품(TV, 책걸상, 칠판 : 1,500명분)

5. 향후 추진계획

- 북측이 요청한 복구 자재·장비의 가능한 빠른 지원을 위해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나누어 전달을 추진
 - 6월말 완료 목표로 추진
- 민간·지자체의 지원은 가급적 “한적” 창구 활용을 권유
 - ※ 5.26 현재, 민간·지자체 지원 상황(통일부 반출승인 기준)
: 20여개 기관 약 212억원 상당 구호물품 지원
 - ※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, 북측 민화협과 용천소학교 등 공동 재건합의서 체결(5.5)
 - 6. 2까지 ‘용천소학교 건립위원회’를 결성하고 6.15 공동선언 4주년에 맞춰 1차 복구 물자 지원 결정

용천역 사고관련, 국제구호 현황

□ 개별국가

○ 미국

- 4.26 백악관 대변인, 적십자사를 통해 10만불 상당의 구호물품 지원계획 발표

○ 일본

- 4.25 외무성, 10만불 상당의 비상 의료세트 지원 계획 발표

○ 중국

- 4.24 외교부, 1천만元(120만불) 상당 구호물자 지원 발표
- 4.25 1차로 신의주 세관을 통해 50만元(6만불 상당) 담요 2,000매, 텐트 300장, 식품 등 전달
- 4.30 모포, 식료품, 자재 등 1,000만元(121만불 상당) 지원

○ 러시아

- 4.24 푸틴 대통령 명의 위로전문 전달
- 4.25 1단계로 의약품 10t, 모포 1천장, 텐트(10-30인용) 85장 등 지원(45만불 상당) 발표
 - * 4.27 평양 순안공항으로 전달
 - * 2단계로 건축자재를 철도를 통해 공급 예정

○ 캐나다

- 10만 캐나다달러(7.4만불), 적십자사 통해 지원 발표

○ EU

- 4.23, EU집행위는 20만 유로(24만불) 상당을 덴마크 적십자사를 통해 지원 결정

○ 독일

- 총리명의로 위로전문 발송
- 30만불 상당 지원계획

- 그밖에, 프랑스, 아일랜드, 스웨덴, 호주, 뉴질랜드, 스위스, 체코, 그리스, 싱가포르, 캄보디아, 시리아, 태국, 오스트리아, 노르웨이, 헝가리, 이탈리아 등 지원 또는 지원 예정

□ 국제기구

-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(OCHA), 유엔아동기금(UNICEF), 세계보건기구(WHO), 유엔식량농업기구(FAO), 세계식량계획(WFP), 국제적십자사연맹(IFRC), 적십자국제위원회(ICRC) 등 204만불 상당 지원

□ 국외 NGOs

- 독일 카리타스, 독일 세계식량원조, LA한인회, 단동한인회 등 12개 단체 47만불 상당 지원

End